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부제 제25446호] 주제 105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  
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오수용  
동지, 안정수 동지, 김용수  
동지, 서홍찬 동지, 조용원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  
시였다.

풍치수려하고 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룡악산기슭  
에 일떠선 룡악산비누공  
장은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  
화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  
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  
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관심  
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비  
누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가  
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이  
공장건설을 중시하시며 설계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었을뿐만아  
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투입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지난 8월 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몸소  
공장이름을 룡악산비누공장으로 명명  
해주시고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우리 당이 완공  
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진두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판철할 불타  
는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온 나라에 라면지는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속에 치열한  
돌격전을 벌임으로써 연건축면적이  
1만 8,400여㎡에 달하는 룡악산비  
누공장을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  
보기, 표준, 세계적수준의 비누공  
장으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장을 돌아보던  
날이 었그제같은데 불과 몇달사이

에 규모가 대단히 큰 현대적인 공  
장이 멋들어지게 완공되였다고, 인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  
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  
의 기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과학적인 기술공정설계에 기초하여  
건축면적과 생산공간을 조성하고 설  
비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을뿐만아  
니라 공장안락을 혼잡운데없이 꾸려나

왔는데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  
하시였다.

원료준비, 전공용화, 물처리, 혼합교  
반, 숙성, 주입, 포장 등 모든 생산공  
정들의 자동화, 무인화물 높은 수준에  
서 실현하고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통합생  
산체제도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하시  
였다.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여  
러가지 물비누포장용기를 광범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사출성형기들은 물  
론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분석검  
증하는 첨단설비들도 그르히 갖추어  
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생산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

는데 삼루, 린스, 그릇세척  
제, 가루비누를 비롯  
여러가지 제품들이 그  
특히 쌓여있다고 하시  
면서 불수루 흐뭇하  
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비누공장에서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  
의 기지수와 생산량을  
변차별로 높이며 그  
질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한 문제, 제품의  
상표들을 더 세련시  
킬데 대한 문제,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종업원  
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비누생산용원  
료와 황료의 국산화  
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데 대한 문제 등  
공장에 나서는 과업들  
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  
분이 좋다고, 쌓  
였던 피로가 풀린  
다고 환하게 웃으  
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우리 사회의 대풍모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아름다운 지향, 탄전의 굳건한 가풍

### 남덕탄광 탄부들의 생활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중에는 누가 보지 않건, 알아주지 않건 똑똑히 자기 맡은 조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많으니.》**

석탄전선을 지키는 경제건설의 최우선이며 로동계급의 핵심부대인 우리 탄부들의 사상적 신세는 참으로 훌륭하다. 얼마전 남덕탄광 10평을 찾았을 때였다.

장부초급당원장 차봉수동부는 200일전투에서 헌신적 헌신을 일으켜가는 탄부들속에는 골길동 오영진동부와 압축기운전동부 김국화동부, 골길동 김형철동부와 압축기운전동부 김보경동부 그리고 석탄전선의 막일남동부와 압축기운전동부 김국화동부들처럼 석탄전선에서 한몸을 던져주는 헌신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며 그 이름들을 꼭 내리놓았다.

최대순, 강명숙부부와 오혁철, 장은정부부 그리고 필태현, 김옥분부부와 김진길, 김정희부부, 소대장 문봉철동부와 그의 아내 김경녀동부, 박복길, 김순희부부와 미근상, 권명희부부, 석탄광 박성철동부와 그의 아내 리은희동부...

그들은 서로 만나면 생신설 축하하며 먼저 묻는것이 인사말이고 그다음에야 자식들과 집안살림살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한다.

남편들은 골길을 평평 내밀어 탄력을 외곽의 띠를 비늘내고 안해들은 압축기와 전양기들을 돌리고 전차들을 몰아가며 높이 세운 200일전투 석탄전선작업현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는 이들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김형희동부는 탄광의 석탄전선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있는 어머니마한 300일전투가운전공이 되었고 그의 동생 김광순동부 역시 석탄부대를 마치고 탄전에 부러내었다.

석탄전을 높이 쏘아올리는 길에서 김형희동부는 조성로동당의 영예를 지니었고 탄광이 자랑하는 헌신자, 모범선동원이 되었다. 김광순동부 역시 6평은 물론 탄광에서도 한타하는 석탄전선으로 소문을 떨치고 있다.

탄광공으로 제일먼저 관공식적으로 석탄전선에 헌신하게 받아들여 석탄전선을 높이고 보아 주기를 진행한 그날 우리와 만난 김광순동부는 말했다.

《석탄을 많이 캐내는것은 우리 탄부들의 생활이고 기본업무

이며 탄전을 지키는 여기에 우리 남덕탄부가정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광순동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골길공, 석탄공시업을 거쳐 헌신자재탄 중대장으로 이듬해마다가 나이 가 들어 지금은 높은 기술과 기능으로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서 한몸 단단히 하고있다는 6평 석탄 1중대 석탄공 리명철동부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 딸 은심이는 권양기 운전공입니다. 딸과 함께 공업의 석탄 석탄을 캐낸다고 생각할 때면 힘들다는 생각은 가차 없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부심과 긍지로 마음 흥겨워지곤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자식들을 탄전에 내세운 남덕탄부들의 목숨은 심정입니다.》

전차운전공을 하는 딸이 시집갈 나이에 이르자 골길탄 재대공인남부 헌정철동부를 사귀고 싶어했었다는 6평 부수소 대장 김철모동부는 동생 진철동부와 함께 오래동안 석탄전선을 위하여 모은것을 바치고 싶었다.

《석탄을 많이 캐내는것은 우리 탄부들의 생활이고 기본업무

### 금야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을 앙양해서 꽃피워갈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날 그의 발걸음은 자연히 로동자구에서 새로 임파하는 약아 소년건설장으로 향했다. 건설장을 돌아다니면서 건설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는 당조직을 찾아와 학아 소년건설을 자기 단위가 맡아 진행할 결심을 내었다.

머릿속 백전백승을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이 모두 펼쳐나선 가운데 학아소를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리기 위한 지칠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자와 로력이 부족되는 등 애로와 난관은 많았다. 그제야 인민보안원들은 아이들끼리 삼 막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인민보안원들은 아이들끼리 삼 막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인민보안원들은 아이들끼리 삼 막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보안원들 세대가 무뎠을 때 없었어야 하였고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탄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난해 6월 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 공식을 받은 원수님인, 애국헌을 찾으시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온 나라에 전해졌을 때였다.

백천원동부는 당에 걸린 정지도식을 자자구 세우고 또 세기 있다. 그럴 수록

### 그들이 함께 걷는 길

어디서나 자주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 **《로연내가 풀벌 쫓김살은 군복을, 훈장을 메달을, 군모에 보이는 것이 배인 주먹과 희숙한 미소이다.》**

대건설전투장들과 골길,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들끓는 일터들에서 그리고 배운의 골로리 울리는 교정에서 전사자들의 혁명적 노예들을 힘있게 부르며 1950년대의 조국건설사수로서 정신이 어떤것인가를 세 세대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주는 우리의 로명가들에게 숭배헌대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이 걸은 애국선봉의 길은 가장 진실하고 참된 충정과 애국의 길이었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 전세대가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있는 유산은 정신도덕적유산입니다.》**

지난해 7월 어느날이었다. 출근길에 올랐던 백과갈림길상 정 김형희동부의 손에서 퍼스안에서 푸다본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군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가슴에 훈장이 번쩍이는 로명들이 조용히 노예헌을 하고있었다. 진정로명적이었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 웃음였다. 그래서 그런지 저절로 마음이 끌려왔다. 그들에게 다가간 김형희동부는 손뼉을 안고있는 로명들이

의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방울이 떨어지더니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져 내렸다. 로명들의 옷이 잠깐시여 비물에 젖어있었다.

하지만 로명들은 주먹을 흔들며 더욱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김형희동부와 종업원들도 뜨거운것을 삼키며 로명들과 목소리를 합쳤다.

그날 로명들과 헤어져 일리로 돌아온 김형희동부와 종업원들의 생각은 깊었다.

《로명동지들과 발걸음을 합쳤고 해서 저절로 정신이 이어지는것이 아니라라는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명들의 불굴의 정신과

### 전쟁로병가정의 재부

평생시 육전1종의 이따한 문화주며,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살림집이다. 좀 다른것이 있다면 미담이 있어 할 집들리 곳곳에 유류자재들을 넣어두는 크고작은 장고들이 있었기 있었다.

바로 이 집에서 지난 수십년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파월로 유지를 비롯하여 세 가지 부속으로 넘어가는 돈더미가 땅속에 반나하 문헌의 한하를 부두어다더니 아바 그걸 파내가지고 오노라 이렇게 놀이짓기였다.

아버이를 기다리지도 버그나 된 우리에게 손언로인이 하는 말기 미안스러움은 어조로 저의 말이었다. 아버지가 지금껏 모아놓은 파월이 얼마쯤 되는가고 물으니 그는 한동안 생각해 잠겨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뒤 배후를 해본적은 없지만 전선에 시 한 일군이 내려와 《아바이, 우리가 로명해 보나 나이에 마친 파월이 자그만치 15에 넘습니다.》 파구 말했다.》

놀리지 않을수 없었다. 혼자서 그 많은 파월을 모아놓았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버찌진 노력과 정성이 가슴에 뜨겁게 파고들었다.

《세 배방전 일곱살이 채 되기 전부터 지주집 풀머슴살이를

했다고 한다. **《해방을 맞이해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려는 그 미인정취원장으로 전국사업에 앞장섰고 나이가 이르다고 땅도 없고 하면서 동네에서 제일먼저 군복을 입었다.》**

《나이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온 방이 아무는 인민간사업을 하던 저와 함께 파월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수매소로 간적이 있었습니까.》

그날 저녁 로선검로인인 안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젠 됐소. 나이가 많은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단 말이요.》

그렇게 시작된 길이었다. 그 때부터 로인의 하루일과는 수십년세월 인제 한민 드린적이 없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주변과 시인의 여리곳을 다니며 유류자재를 수집하던 때는 그가 하루평균 걷는 거리는 무려 30리가 넘곤 했다.

손뼉해동부도 집인의 막내며 나리로 불리는 후 재생시의 마을속에서는 동네사람들앞에서 늘 파월과 후지가 든 마더를 걸머지고 다니는 시아버지에 대한 인망스러움이 가차지지 않았다. 후날 로선검로인인 머느리를 잊어놓고 말했다.

《한 마더에 과월조각을 넣어

### 수적적인 량적적 질적적 이리를 이루는 일

누가 보지 않건, 알아 주지 않건 사회와 인간을 위한 애국의 길에 순철한 항심을 버치지 않는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다. 함흥시 사포구역에 사는 백성김동부의 온 가족도 바로 그렇게 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무장분열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들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어느날 조국에 보병이 되는 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맡고나서는것이 백성김동부의 가정의 가풍이다.

백성김동부의 온 가족이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좋은 일들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한 것은 몇해전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칠을 이 땅에 활짝 꽃피우시며 불면불부의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유익한 일들 많이 하고자 결심한 아들입니다.》**

몇해전 함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높이 모시는 사업이 진행되던 때의 일이다.

### 비약의 나라려고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2016년 아시아청소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성근, 함유성선수들

우리 탁구선수들이 국제경기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8월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 탁구 단식경기에 참가한 김성근선수가 비록 올림픽경기 대회와 정선경기는 전혀 없었지만 당의 정선경기와 함께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순위권에 입선함으로써 세계탁구계를 놀라운데 이이 김성근, 함유성선수들이 얼마전 라이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청소년탁구선수권대회의 18살미 단급 남자복식경기에서 단연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었다.

대단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수들의 사상정신신장과 투지, 민첩성과 기술을 체육경기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탁구단원들의 말에 의하면 해당이 진행되는 아시아청소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서 해당 나라와 지역의 대표선수들, 세계적인 탁구선수들이 많이 배회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아시아청소년탁구

### 친혈육의 심정으로

그런데 대과장 김옥수동부가 이런 내용을 말했다. **《환자의 투병정에대인의 어머니이다. 강한 이들을 키운 어머니인데 해구말리 환해서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의 몸상태가 너무 허약했

경쟁적인 3회전을 앞두고 경기장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술방안을 제시하여 선수들을 적극 고무해준 압축기운전동부 김국화동부, 선수들의 가슴가슴은 필승의 의지로 더욱 불타다.

소호국시절부터 평양학생소년공진 탁구소조미 최진성소년체육학교에서 탁구초기기술을 마음껏 터득하고 압축기운전동부, 최복제동부 등에서 희망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치게 해주었으며 국제경기무대에까지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마당의 그 사랑에 기여이 승리로 보답할 임업을 세한 격려를 일으켰다.

서로 마음에서 더욱 확고하고 투기를 잘 살린 데대한 공격진을 붙이는데는 그의 정신차별 없었다. 경기형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우리 선수들은 심심도 드높이 3회전, 4회전에서 연속 이기 5회전에서 2도도적인 점수 차이로 앞서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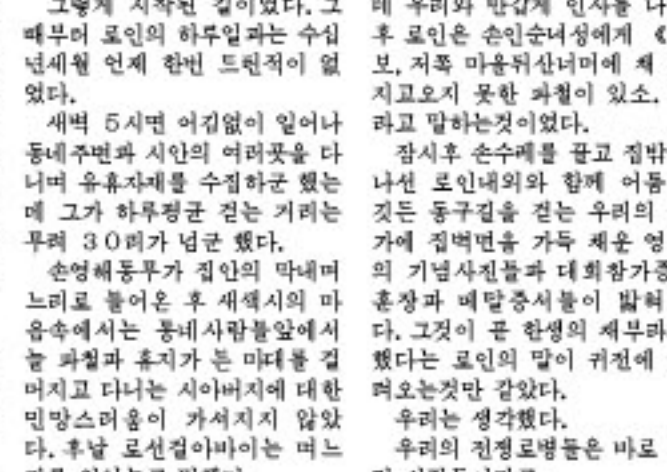
놀라움의 목소리, 경탄의 목소리들이 치열했다. 국제경기경험이 매우 어린 조 선수들이 저렇게 높은 수준에



군인이 힘을 합쳐 살림집대부공사를 다그치고 있다. -함북도 북부비해북구전투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본사기자 조경철



본사기자 리남호

간오원들의 정성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들의 정성에 막영육녀성은 함고함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고마운 사회주의보전제도 때때속에서 저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장정철



# 남조선에서 박근혜역적을 징벌하기 위한 대중적투쟁 계속 확대

## 《박근혜는 즉시 하야하라》

### 남조선 각계가 강력히 주장

만고역적 박근혜역적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기운이 고조되고있다.

26일 4월혁명회, 전국대학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연대총비로한 8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박근혜의 《미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퇴진과 《대통령》의 《대통령》노릇을 했다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번 한 개인이 국정을 통괄한 이 사건은 사상 유례없는 것이라고 격론을 폈다.

이 사건은 《최순실게이트》도 아니고 연설문부수사건은 더욱 아니며 말그대로 하나의 치욕이고 《박근혜게이트》, 《국치게이트》라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박근혜가 한시바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데 있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박근혜는 더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즉시 하야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이같이만 믿음을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민중의 저항에 부딪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같은 날 부산지역의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역광장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 부산본부장이 박근혜가 한 하루라도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 땅 전체 민중의 불행이며 이런 《대통령》이 없는것이 낫다고 외치는 참가자들은 열렬히 호응하였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언론들은 소름오르도록 나쁜 《미선실세》의 국정개입의혹이 구체화되면서 박근혜를 향한 민중의 싸늘해진 민심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또 시국선언과 대자보게시용의 일이 이어지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오전 부산시의 대학생들이 박근혜역도 가 도시에 나타난것과 때를 맞추어 기습시위를 벌였다.

과교정찰에 의해 변형되여가면서 또 그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 《대통령》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보다 앞서 25일에는 광안리 해변과 민주주의국민행동들이 각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선실세》인 최순실과 박근혜사이 사사로운 관계때문에 국정개입이 용이하게 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박근혜는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27일 상권관대 학교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의 《대통령》은 능력이 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탄핵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가 가능한 빨리 내각과 청와대비서관들을 전부 사퇴시키고 모든 일을 새 내각에 위임하는것이 더 이상의 사회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라

고 경고하였다. 박근혜탄핵추진위원회 시민연대, 박근혜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피의 집권자의 탄핵을 위한 단체들이 전지적범위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투쟁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가업자들은 인터넷에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자료를 올려 역도년들을 둘러싼 수많은 부정부패행위들을 폭로하고있다. 《대통령 탄핵》과 《하야하라》라는 단어는 인터넷검색어중에서 여전히 1, 2위를 다투고있고 지어 박근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한 주민은 《박근혜를 신속하게 탄핵시키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다스릴 생각을 해야 한다.》, 《신속하게 탄핵조치 취하고 박근혜 사형하라고 시위해야 한다.》 등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글들은 본 독자들이 앞을 다투어 찬성을 표시하고있다.

또한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탄핵을 논의할 때다.》, 《박근혜를 빨리 버려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탄핵정국을 일으켜야 한다.》 등의 글들도 연수 올라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우를 침략에 교묘하는 단계를 제기하고 전철환성으로 의견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도 《박근혜가 최순실국정총리사건과 관련하여 활영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 《싸드》배치 철회하고 전쟁모의 중지하라

###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싸드》 배치지정국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오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피해자들의 모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회견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년대안보협의회를 열고 《싸드》배치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남조선에 미국 이지스쿠라함을 항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이른바 확성적행동, 북침선제공격계획회주최를 위한 논의는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3각사동맹주축의 괴리라고 폭로하였다.

배치에 찬성한 《새누리당》계 거버너들이 저들의 원대내외국정정책을 여의없이 이데러는 추태를 부리고있어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야당소속의 어느 한 상임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호전적충족에서 물러나오는 《대북특정파적분》에 대해 대대항을 불이오는 주장이라고 반대행동을 표시하였다. 여기에는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민심이 반영되어있다.

그런데 《새누리당》계 거버너들은 미국의 《대북특정파적분》을 반대하고 경고한것은 가망이 없나니, 얼렁거 바뀔 만하다 하니 하고 힘써 고아대면서 《국회》회의장에서 집단적행하는 망명을 부렸다. 이른바 《새누리당》계 거버너들이 《대북특정파적분》을 찬성하는 《국회》의장인 정세균이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는데 반대행동을 표시하였을 때에도 무슨 큰일이나 난 뜻이 고풍을 쓰며 항의하는 추태를 부렸다. 또해 집단적행하는 망나니짓을 하였다. 이자들은 《국회》의장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회》정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의 의정

적시회까지 요구하여나왔다. 이 얼마나 황제배신자행태인가. 전미시대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새누리당》계 거버너의 뼈속까지 배인 악습이다. 미국과 한시라도 멀어지면 당장 죽을것처럼 매수배를 치며 상기의 옷살에 매달려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온 원미역적들이 바로 이 반역당계 거버너들이다.

미국의 비위를 조공이라도 건드림과 두리췌장 선정을 극비로 주둔하며 췌한 《국회》에서 집단적행하는 《새누리당》계 거버너들의 망신욕을 추는 남조선 민중의 조소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전미시대와 대미추종에 저를 대로 췌들이 표품만 한 민족적 자존감을 없이 대국적기질을 그 대로 드려내 《새누리당》의 추태를 두고 《집단적행》을 벌였다는 《새누리당》, 《통제》는 《통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통제》라고 비난하고있었는가.

세상사망들의 조공거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원미결핵행위에 갈수록 얼을 올리는 《새누리당》계 거버너들이야말로 민족의 넋이 라고는 표품만큼 없는 더러운 식민지인양들이다. 오물장에 생하는것은 원미역적들이라고 전미시대와 양면인 《새누리당》계 거버너들이 《새누리당》의 민족의 존엄과 민족을 장고미 팔고있으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고대만 핏발을 차고다니는 멸의별 배주노릇이 다 모여

있었다. 이런 췌세거들의 소굴인 《새누리당》계 거버너들 김부승과 같이 미제침략군사행방을 등에 업고 돌아가며 비굴하게 높아대는 인간충족, 집단적행이 나 오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대국민족의 더러운 명줄을 유지하려고 미국산정의 발발때를 할웃이 삼삼게치며 괴리불하는 억울한 원미분자들이 권력자의 저리를 차지하고있기에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더 전락하고 상진으로부터 《전화》지 못한 2부류인종》위급을 당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사상이 사대주의를 하면 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거역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저 하나의 안목과 향락, 치부를 위해 나라를 일제에게 총체로 팔아먹은 《유사오적》들의 사대대국충취로 하여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역사는 민족사부

에 시대대국충취로 삼관치던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는 괴리미역적행위를 도모하려고 미저남에게 을 떠드는 미국산정들을 극구 용조해나선것과 상진과 아함하여 미저미역적행위를 불쌍을 기어미저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민중을 망신시키는 친미역적들의 추태

있었다. 이런 췌세거들의 소굴인 《새누리당》계 거버너들 김부승과 같이 미제침략군사행방을 등에 업고 돌아가며 비굴하게 높아대는 인간충족, 집단적행이 나 오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대국민족의 더러운 명줄을 유지하려고 미국산정의 발발때를 할웃이 삼삼게치며 괴리불하는 억울한 원미분자들이 권력자의 저리를 차지하고있기에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더 전락하고 상진으로부터 《전화》지 못한 2부류인종》위급을 당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사상이 사대주의를 하면 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거역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저 하나의 안목과 향락, 치부를 위해 나라를 일제에게 총체로 팔아먹은 《유사오적》들의 사대대국충취로 하여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역사는 민족사부에 시대대국충취로 삼관치던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는 괴리미역적행위를 도모하려고 미저남에게 을 떠드는 미국산정들을 극구 용조해나선것과 상진과 아함하여 미저미역적행위를 불쌍을 기어미저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대국민사과문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정치적과 국상대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수 있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박근혜의 기만적인 사과농담을 배격하

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여 2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중언외설을 출세할 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우병

이 크고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위기, 대선연전 등과 맞물